

みんなくりポジトリ

国立民族学博物館学術情報リポジトリ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朝鮮半島の文化」新展示の評価について

メタデータ	言語: jpn 出版者: 公開日: 2009-04-28 キーワード (Ja): キーワード (En): 作成者: 佐々木, 史郎 メールアドレス: 所属:
URL	https://doi.org/10.15021/00002236

「朝鮮半島の文化」新展示の評価について

佐々木史郎（宇都宮大学）

1. はじめに

3年間にわたる共同研究「ものを通してみた朝鮮民俗文化」に参加してきた者として、このほど公開された「朝鮮半島の文化」の新展示とそれをめぐるシンポジウム「日本における韓国文化の表象」の議論は、さまざまな意味で考えさせられる点が多かった。

共同研究では、各自の専攻分野からの研究発表とともに、開館後20年をへた旧展示の見直し案の検討に相当の時間がさかれてきた。その議論の中では、展示物の選定、展示事例の「代表性」の確保、「伝統」と「現代」の扱い、来館者の疑似体験の導入などが何度か取り上げられ、その議論をふまえた試みが実際の展示にかなり盛り込まれたように思う。今回のシンポジウムでの議論はまさにその成果の検証にほかならないが、筆者としては、それなりの達成感とともに、これまでの共同研究での検討事項について、あらためて答えの出ない難問を投げかけられたような思いが残った。

2. 展示物の選定について

限られた空間の中で、何と何を展示すべきかということは、この国立民族学博物館（以下、民博）に限らず、どこの博物館でも頭を悩ます問題であろう。「民俗文化の展示として取り上げるべき基本項目はこれとこれ」という明確な標準がない以上、どのような展示に対しても、何らかの過不足を指摘する声は常についてまわる。ここではそうした議論に一定の方向付けや展望を示す余裕はないので、やや角度を変えて、別の面での難しさを想起するにとどめたい。

この博物館の性質上、展示物は、偉大さや輝かしさ、立派さとは縁遠い「ごく普通の」もの、あるいは「ある時期までごく普通にみられた」ものが中心となる。しかし、この「ごく普通の」という点が、見る人によっては不快に映るという状況はある程度想定しておく必要があるだろう。

朝鮮半島の展示物が他地域のものに比べて貧弱であるとの評は、旧展示の時も何度か耳にしていたし、「横浜人形の家博物館」の場合でも同様だったから、今回の改装

『朝鮮半島의 文化』新展示의 評價에 대하여

佐々木史郎 (宇都宮大學)

1. 머리말

3년간에 걸친 공동연구, 「물건을 통해서 본 조선민속문화」에 참여해왔던 사람으로서, 그 동안 공개된 「조선반도의 문화」의 新전시와 이 전시를 둘러싼 심포지움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문화의 표상」이라는 논의는 여러 의미에서 시사점이 많았다.

공동연구에서는 각자 전공분야에서의 연구발표와 함께, 개관 후 20년이 지난 舊전시에 대한 수정안의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할애되었다. 그 논의 가운데에는 전시물의 선정, 전시사례의 「대표성」의 확보, 「전통」과 「현대」의 취급, 방문자의 가상체험의 도입 등이 몇 차례 거론되었고, 이 논의를 토대로 한 시도가 실제 전시에 틀림없이 반영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번 심포지움에서의 논의는 그저 그 성과의 검증에 지나지 않지만, 필자로서는 그 나름대로의 성취감과 아울러, 지금까지의 공동연구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해답이 나오지 않는 어려운 질문이 제기되었다고 생각한다.

2. 전시물의 선정에 대하여

제한된 공간 속에서 무엇과 무엇을 전시해야만 하는가는 이 국립민족학 박물관에 국한되지 않고, 어느 박물관에서도 골치 아픈 문제일 것이다. 「민족문화의 전시로써 다루어야만 하는 기본조항은 이것과 이것」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이상 어떠한 전시에 대해서도, 누군가로부터 과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언제나 따라 나온다. 여기서는 이러한 논의에 특정한 방향 설정이나 전망을 제시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약간 각도를 바꾸어서, 다른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상기하는 것에 그치고자 한다.

이 박물관의 특성상, 전시물은 위대함이나 찬란함, 훌륭함과는 달리 「지극히 평범한」, 혹은 「어떤 시기까지 지극히 보통으로 생각되는」 물건이 중심이 된다. 그러나 이 「지극히 평범한」이라는 점이 보는 사람에게 있어

後もそうした声が寄せられることは想像に難くない。韓国を訪れる日本人観光客が、とりたてて立派でもなんでもないもの、たとえば市場の店先、雑然とした街角、きれいとは言いがたい大衆食堂、古びた家屋、ごく普通の日用品などにカメラを向けて、現地の人々の不興を買ったりするのも、同じ構図かもしれない。研究上の動機からであっても、あるいは単に郷愁や物珍しさからであっても、日本人がこうした事物にことさらに興味を示すことに対して、何か別の意図を感じて敏感に反応する人々がいるということは念頭におくべきである。

このような状況は朝鮮半島に限ったことではないのかもしれないが、民博では、来館者の構成や意識などから、この地域の展示にそうした視線が注がれやすい状況があるのは事実であろう。民博全体のコンセプトの中で共通のないし標準的な展示項目を設定し、地域別ではなくカテゴリー別にして展示すれば、そうした問題もある程度軽減されるのかもしれないが、反面、各地域ごとの総体的なイメージは希薄にならざるをえない。

3. 「現代」を展示することの意味

もともと旧展示では「プラスチック以前」という基本線があったと聞いている。しかし、南アジアなどの展示では、すでにその線を超えたものが現われはじめていたし、朝鮮半島部門でもそのことが議論され、今回、現代的な展示物がかなり登場することとなった。このことには賛否両論があるものと思われる。

まず、「現代化された物品の中にもその地域なり民族なりの文化的個性が現われている」と言いたいにせよ、「現代化の過程で世界的に同質化が進行しつつある」ことを訴えたいにせよ、今回の展示方法で実際にそうしたメッセージを伝達する効果が期待できるかどうかについて検討してみる必要がある。

また、現代的な事物を常設展示することの是非について、十分な議論はなされてこなかったように思う。今日の韓国のように変化の激しい社会では、日常の生活用品の形状も刻々変貌している。今回登場した「現代もの」の多くも、数年を待たずして「現代」の名に値しない歴史的物品になっていくであろう。この種の展示は頻繁に更新を繰り返していかないと、現代の姿を伝えるという本来の趣旨が失われてしまうので、むしろ時代による日用品の変遷を企画展の形で示すといった方法の併用も考えておくべきではあるまいか。

さらに、この共同研究には1980年以降に韓国に留学したり、本格的な調査活動

서는 불쾌하게 비쳐질 수 있다는 상황은 어느 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전시물이 다른 지역의 전시물과 비교해 볼 때 빈약하다는 평은 舊전시 때에도 몇 번이고 지적되었고, 「요꼬하마의 인형의 집 박물관」의 경우에서도 똑같았기 때문에 이번 개장 후에도 한편으로 이러한 의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다.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이 특별히 내세우고 훌륭하지도 않는, 아무것도 아닌 물건에, 예를 들어 평범한 일용품 등에 카메라를 향하고, 현지의 사람들이 흥미 없어 하는 것을 사기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일지도 모른다. 연구의 동기에 있어서도 혹은 간단히 향수 또는 신기한 것이라고 해도, 일본인이 천거하는 사물에 더욱 더 흥미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의도를 느끼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염두에 두었다.

그러한 상황이 조선반도에 국한된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국립민족학 박물관에 있어, 방문자의 구성이나 의식 등으로 인해 그 지역의 전시에 이러한 시각이 투영되기 쉬운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국립민족학 박물관 전체의 컨셉중에서 공통적 내지는 표준적인 전시항목을 설정하고, 지역별이 아닌 카테고리 일반에 의해 전시된다면 이러한 문제도 어느 정도 경감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반면 각 지역마다의 총체적인 이미지는 희박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현대」를 전시하는 것의 의미

본래 舊전시에서는 「플라스틱以前」이라는 기본 방안이 있었다고 들었다. 그러나 남아시아 등의 전시에서는 이미 그 방안을 넘어선 것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조선반도 남부에서도 그런 것이 논의되었으며, 이번에 현대적인 전시물이 상당히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에는 찬반 양론이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현대화된 물품 중에서도 그 지역이라든가 민족 등의 문화적 개성이 나타나 있다」고 말하고 싶어도, 「현대화의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동질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호소하고 싶어도, 이번의 전시방법에서 실제로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의 여

を始めたりした研究者が多く参加しており、その経験に根ざした共通の知識や記憶、感性などが、収集品や展示内容の選定にあたって微妙に作用していなかったとはいえない。少なくとも筆者自身についていえば、常に個人的な関心や愛着、郷愁などを排除する努力を続けてきたと言い切れる自信はない。そのことが特定の文化に対する指標性や代表性の確保という点で、韓国側の研究者に違和感や疑問を与えたとしたら、今後その修正の道を模索すべきであろう。

4. 地域性の表現について

地理学専攻の立場からこの共同研究に参加した筆者は、民博展示における「地域性の表現」という課題に常に関心をもっている。朝鮮半島の場合、半島内の地方差と、周辺諸地域との関連性という二つの面が上げられる。

筆者の主要な関心の対象である民家についていえば、従来朝鮮半島コーナーの中央部にあった済州島の民家模型を、今回沖縄地方の民家模型の近くに移したのは、後者の面を意識したひとつの試みであった。ただし、済州島と日本の南西諸島や沖縄地方との関連性は今後の検証にまつべき課題を多く残しているし、済州島と朝鮮半島本土との比較も不可欠なので、今回の措置が妥当であったかどうかは即断しがたい。

もともと半島本土ではなく済州島の民家模型を展示するにあたっては、朝鮮半島民家の特徴をもっともよく示す代表性の有無とは別の観点からの判断があったと聞いている。筆者としては、模型の出来栄えの見事さとは別に、そのことに不満があった。朝鮮半島全体の中での位置づけを欠いた唐突な展示と感じられたのである。そうしたことは、民家だけでなく、他の項目についても当てはまる。シンポジウムの席でもふれたことだが、筆者は、民博の展示は特定地域を孤立的に扱うのではなく、世界的な視野での比較や位置づけを可能にする方法をとってこそ意味があると考えている。その意味では、今回の改装にもまだ不満は残っているといわざるをえない。

5. おわりに

最後に、今回の新装展示において焦点のひとつとなった酒幕の復元について、簡単にふれておくことにする。

「なぜ、酒幕か」という問いかけは当然なされるべきであるが、「なぜ、これを」という問いは他の展示についても言えることなので、ひとまずおくことにしよう。原寸大の家屋模型の展示というだけでなく、人や文物の移動・出会い・交流の象徴として

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대적 사물을 상설 전시하는 것에 대한 시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한국과 같이 변화가 격렬한 사회에서는 일상의 생활용품의 형태도 각각 변모하고 있다. 이번에 전시되었던 「현대 물건」의 많은 부분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역사적 물품이 될 것이다. 이런 종류의 전시는 빈번한 갱신을 반복하지 않으면 현대의 모습을 전달한다고 하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시대에 의한 일용품의 변천을 기획전의 형태로 전시하는 방법의 변용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더욱이, 이 공동연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에 한국에 유학했거나,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시작했던 연구자가 많이 참가했고, 그 경험에서 비롯된 공동의 지식과 기억, 감성 등이 수집품이나 전시내용의 선정에 미묘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필자 자신에 대해서 조금 말하자면 대단히 개인적인 관심이나 애착, 향수 등을 배제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단호히 말할 자신이 없다. 이것이 특정 문화에 대한 지표성이나 대표성의 확보라는 점에서 한국측의 연구자에게 위화감이나 의문을 주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그것을 수정할 방법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4. 지역성의 표현에 대하여

지리학전공의 입장에서 이 공동연구에 참가했던 필자는 국립민족학박물관 전시에 있어 「지역성의 표현」이라는 과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의 경우, 한반도내 지방차와 주변지역과의 연관성이라는 두 측면이 고려되었다.

필자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인 민가에 대해 말하자면, 종래의 한반도 코너의 중앙부에 있었던 제주도의 민가모형을 이번에 오키나와 지방의 민가모형에 가깝게 이동시킨 것은 후자의 측면을 의식한 하나의 시도였다. 다만, 제주도와 일본의 남서쪽의 섬들, 그리고 오키나와 지방과의 관련성은 금후의 검증에 의지해야만 하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고, 타당성 여부는 이 자리에서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다.

원래 반도 본토가 아닌 제주도의 민가모형을 전시하는 것에 직면해, 한반도 민가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성의 유무와는 별도의 관점에서

来館者に受けとめてもらえるとすれば、一応の成功と考えたい。

酒幕そのものの復元は満足すべき水準といえる。さらに改善を望むとすれば、オンドルの床や、醬甕台（チャントクテ）・前庭（マダン）の質感が今ひとつという点である。オンドルの床の敷物は正確な考証の成果であるにしても、オンドル部屋の一般的雰囲気を知るという意味では、壮版紙（チャンパンジ）を貼った部屋も一間設けてほしい気がする。また、横浜市の三ツ池公園内に造成された「コリア庭園」のように、石材や土の使い方次第で建物周りの雰囲気をより忠実に再現することも可能ではあるまいか。また、本来の屋根材の使用は無理としても、写真や民画を添えるなどの補助的手段が考えられよう。

ともあれ実際に部屋に上がってオンドルの暖かさを実感できるこの酒幕は、朝鮮半島の展示の目玉として、来館者に歓迎されることであろう。この展示の登場で、さらに生き生きとした企画が生まれることを期待したい。

비판이 있었다고 들었다. 필자로서는 모형의 만듬새에 대한 훌륭함과는 별도로, 그것에 불만이 있었다. 한반도 전체 중에서의 자리매김을 결여한 뜻밖의 전시라고 느껴진 것이다. 이러한 것은 민가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심포지움의 자리에서도 언급했던 것이지만, 필자는 국립민족학박물관의 전시가 특정지역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시야에서 비교와 자리매김 등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받아들일 때, 그야말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의 개장에 아직 불만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5. 맺음말

마지막으로, 이번의 신장 전시에 있어서의 초점의 하나가 된 주막의 복원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해 두고자 한다.

「왜 주막인가」라는 질문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왜 이것을」이라는 질문은 다른 전시에 대해서도 언급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제쳐두기로 하자. 원 상태를 복원한 전시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문물의 이동, 조우 또는 교류의 상징으로써 방문자들에게 받아들여졌다면 일단은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주막 자체의 복원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한다. 더욱 개선을 바란다면, 지금은 온돌의 잠자리, 장독대, 마당 등의 질감이 개선점이다. 온돌의 잠자리 깔개는 정확한 고증의 성과라고 해도, 온돌방의 일반적 분위기를 안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장판지를 깐 방도 조만간 설치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든다. 요꼬하마시의 공원 내에 조성된 「한국정원」과 같이 석재와 흙을 사용하여 건물주위의 분위기를 보다 충실히 재현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또는 본래의 방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무리하고 해도, 사진이나 민화 등을 첨부하는 보조적 수단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실제로 방에 올라서서 온돌의 따듯함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주막은 한반도 전시의 핵심으로써 방문자에게 환영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전시의 등장으로 더욱 생생한 기획이 가능해질 것을 기대해 본다.